

계급성 앞세운 교조적 도식주의

북한 「철학사전」을 보고

허남진

한림대 교수 · 철학

작년부터 시작된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몇몇 용기있는 출판인들에 의해 전개된 북한바로알기-북한원전 출간운동은 기존의 모든 금기를 단숨에 깨버리고 북한의 학술적·문학성 성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당면한 관심사와 대중적 수요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출간된 북한의 서적들을 살펴보면 주체사상과 한국근대사에 관한 개설서들과 문학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학문적 성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단순히 북한을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교류하고 그 연구결과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통사나 개설서류가 아닌 전문적인 연구서적·논문집 등이 체계적으로 소개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북한의 사상이나 한국사에 관한 책이 아닌 학술서적-예를 들면 북한에서 집필된 중국철학사, 회랍철학, 서구마르크시즘 등-이 출간되면 북한의 학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보다 분명해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대를 막연히 품고 있던 차에 북한의 「철학사전」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연한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전이란 한 시대, 한 국가의 문화적 결산이며 또한 공인된 통설만을 결집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철학사전」을 한번 훑어본 필자의 느낌을 우선 말하자면 '분단의 벽은 참으로 높구나'하는 것이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남·북이 다르듯이 '사전'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도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게 쓰는가 싶었다.

이번에 「철학사전」을 재출간한 힘출판사 편집부는 이러한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김일성에 관한 찬양을 삭제하고 배열순서를 우리식으로 고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했다. 책의 서술형식에 의해 이질감이 오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을 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있는 그대로 영인해내는 것이 북한을 정확히 알게 하는 데는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이질감에 대한 심각한 자각만이 이질감 해소의 필요성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상사전'

이 사전은 북한의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공동집필한 것으로 1985년에 출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전은 최근의 북한 학술상

「철학사전」은 '변증법과 형이상학'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도식을 적용하여

사상을 재단하고, '진보와 반동'

'애국과 매국'이라는 잣대로

모든 철학자·사상가를 평가함으로써

가치의식을 사실에 우선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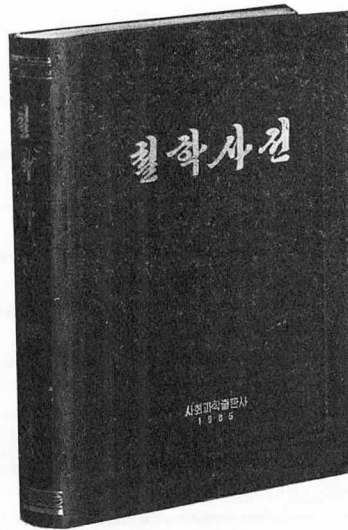
그러나 시사적이고 현장성 있는

문제에 대한 평이한 서술 등은

우리도 시도해볼 만한 점이다.

황을 반영한 것이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집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목은 '철학사전'이지만 우리의 기존관념으로는 '사상사전'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 약 700여 페이지 1300여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 사전은 철학 및 사상 개념사전과 철학자·사상가 인명사전을 겸한 것으로는 분량이 좀 부족할듯 하나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주요개념과 사상가들, 그외의 서양철학의 주요개념과 철학자, 중국철학의 주요개념과 인물, 한국의 전통철학과 주요인물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스탈린이 모두 1면 정도 할애되어 서술되는데 비해, 김일성에 관한 두 항목은-수시로 나오는 인용문을 제외하고도-33면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1300여 항목 가운데서 '주체'로 시작하는 항목이 26, '수령'이 13, '혁명'이 33항목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의 연설문, 대담, 논문 제목이 약50항목에 이른다. 이러한 분량의 배분만 보아도 이 사전의 주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우리가 이 사전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북한의 학문적 성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사전'에 대한 우리의 기존관념을 잠시 잊혀두고 먼저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철학사전을 구성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며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일단 살펴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의 철학이 아니라, 철학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일적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밝힌 세계관을 주



는" 포괄적 학문으로 "계급성, 당파성"을 띤다. 이로 말미암아 과거의 철학사는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역사"였으나 마르크스, 레닌이 이에 중지를 찍고 "세계의 본질과 운동의 일반적 법칙을 밝힌 과학적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해명한 것이 주체철학인데, 이를 김일성이 전일적 세계관으로 완성하고 김정일이 심화발전 집대성하여 과학적(?)이고 올바른(?) 세계관을 완결된다. (p550~552)

이상 간단히 요약한데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전에서는 '참된 철학 즉 주체철학'이라는 등식으로 모든 철학·사상과 철학자를 재단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주체, 즉 인민대중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이념이므로 항목선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철학사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외에 여러 정치적, 사회적, 시사적 항목까지도 철학사전의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다.

도식적이고 교조적인 평가기준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이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승·발전이라고 이 사전의 여러곳에서 반복강조되지만 상세한 설명은 보이지 않고, 또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반에 대한 설명도 소략하다. 마르크스주의의 장점 중의 하나는 사적유물론에 입각하여 어떤 사상을 자체의 관념적, 정합성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배태한 사회와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사전에서도 철학자, 철학개념을 기술할 때 사적유물론의 기본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변증법과 형이상학'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도

식을 적용하여 사상을 재단하고, '진보와 반동' '애국과 매국'이라는 잣대로 모든 철학자, 사상가를 평가함으로써 가치의식이 사실에 우선하게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사상 내지 철학과 사회와의 유기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는 사상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사상 및 상부구조와 사회경제적인 토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도식적이고 교조적인 이해는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대한 연구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심지어는 주체사상의 기본입장이 마르크스주의의 그것과 잘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사전의 서양의 철학자와 개념설명은 1950~60년대 소련의 공식철학이 지녔던 교조적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중국의 철학자에 대한 규정과 개념설명도 文革 이전 중국철학 연구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철학자를 평가하고 철학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체사상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남한에서의 평가와 분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한국의 전통사상에 관한 부분에서이다. 이 사전에서 한국의 전통철학과 철학자들이 전체 분량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기준은 여타철학과는 달리 애국주의가 우선하고 그다음에 진보성, 유물론 및 무신론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는 점에 눈에 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주체사상이 지니고 있는 국수주의적 요소, 지나친 단순성, 도식주의 등의 약점을 그대로 사전서술에서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철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설정될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할 정도로 시사적이고 현장성 있는 문제에 대한 평이한 서술,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되고 있는 일관된 태도 등은 우리의 사전작업에도 한번은 시도해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전은 북한의 학문적 성과와 관심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합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이 사전을 통해 북한의 서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전을 대충 검토해보고 필자가 아쉽게 생각한 점은 동독에서 나온 「철학개념사전」이나 중국에서 나온 「대백과사전-철학 및 중국철학사」와 비교해 볼 때 분량이나 유연한 태도, 치밀한 논증, 실증성 등 여러 점에서 뒤떨어진다는 점이다.